

[정보·과학]

우주인 이소연 출발에서 귀환까지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29) 씨가 12일간의 우주임무를 마치고 19일 오후 5시30분(이하 한국시각) 무사히 지구로 귀환했다. 이로써 이씨는 세계 475번째 우주인이자 세계 49번째 아시아 2번째 여성우주인으로 기록됐으며 우리나라는 36번째 우주인 배출국, 7번째 여성우주인 배출국, 12번째 우주과학실험 국가가 됐다.



18가지 과학실험·퍼포먼스 등 임무 수행

◇소유즈 우주선 발사=지난 8일 낮 12시20분에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우주기지 우주인호텔에서 출정식을 마친 뒤 우주기지 내 에네르기가 건물로 이동, 최종 의학검사를 받고 우주복을 입었다. 이 씨가 우주선 탑승자이자 한국 최초 우주인으로 최종 확정된 순간이었다. 이씨는 이어 우주인 보고식을 마친 뒤 발사 2시간 전인 오후 6시께 세르게이 볼코프 선장(34)과 올레그 코노넨코(43) 비행 엔지니어와 함께 소유즈 TMA-12호에 탑승했다.

우주인 3명이 전통에 따라 새로운 우주인을 맞이하는 '우주인 환영식'을 가졌다. 이 씨는 ISS에 9박10일간 머물며 18가지 우주과학실험과 지상 연결 생방송, 아부추이 무선통신(HAM), 각종 우주퍼포먼스 등 많은 우주임무를 수행했다. 인류 최초 우주인 유리 가가린을 기념하는 '우주의 날'인 12일에는 이씨와 동승 우주인들이 밥과 김치, 고추장, 라면 등으로 된 한국식 우주찬란을 즐겼다.

◇국제우주정거장 도킹과 우주 임무=이 씨를 태운 소유즈 TMA-11호가 19일 오후 5시30분 카자흐스탄 북부 초원지대에 착륙, 한국 최초 우주인의 우주대장정이 막을 내렸다. 우주 임무를 마친 이 씨는 러시아 우주인 유리 말렌첸코, 미국 여성 우주인 페기 윌슨과 함께 19일 오후 2시 소유즈 귀환 우주선을 타고 귀환했다. 3일이 걸린 발사·도킹과 달리 귀환에는 3시간30분이 소요, 이날 오후 5시30분에 지구로 돌아왔다.

ISS에서의 바쁜 일정은 11일 탑승 직후부터 19일 귀환 직전까지 이어졌다. ◇도킹 해체에서 귀환까지=이 씨를 태운 소유즈 TMA-11호가 19일 오후 5시30분 카자흐스탄 북부 초원지대에 착륙, 한국 최초 우주인의 우주대장정이 막을 내렸다. 우주 임무를 마친 이 씨는 러시아 우주인 유리 말렌첸코, 미국 여성 우주인 페기 윌슨과 함께 19일 오후 2시 소유즈 귀환 우주선을 타고 귀환했다. 3일이 걸린 발사·도킹과 달리 귀환에는 3시간30분이 소요, 이날 오후 5시30분에 지구로 돌아왔다.

◇국제우주정거장 도킹과 우주 임무=이 씨를 태운 소유즈 TMA-11호는 이날 동안 지구를 34바퀴 돌면서 엔진을 가동해 궤도 높이를 국제우주정거장(ISS)이 있는 338km로 높인 뒤 도킹작업에 돌입했다.

귀환 모듈은 예상지점에서 서쪽으로 478km 떨어진 오르스크 초원지대에 착륙해 MCC는 오후 5시50분이 돼서야 착륙 성공을 공식 발표했다. 이어 오후 6시9분께 선장인 유리 말렌첸코가 무선통신으로 우주인이 모두 건강하다는 사실을 알렸고 오후 6시17분 수색구조대 헬리콥터가 착륙지점에 도착해 3명의 우주인을 무사히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소유즈 우주선은 10일 오후 9시57분 ISS와의 도킹에 성공, 3시간 만인 11일 새벽 0시41분 이씨와 동행 우주인들은 해치를 열고 ISS로 진입했다. 이 씨는 세르게이 볼코프 선장에 이어 ISS에 탑승, ISS의 157번째 탑승자가 됐다.

이 씨가 우주인이 ISS에 탑승하면서 현재 ISS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ISS에서의 바쁜 일정은 11일 탑승 직후부터 19일 귀환 직전까지 이어졌다.

귀환 후 무슨 일 하나

유인 우주기술 개발 참여 할 듯

한국 첫 우주비행에 성공한 우주인 이소연씨는 지구 귀환 이후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될까. 2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공우연)에 따르면 한국 첫 우주인이 된 이소연씨는 귀국 후 항공우연 연구원 신분으로 각종 유인 우주프로그램에 대한 연구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수행한 각종 우주실험과 우주활동 등 우주비행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동안 교본을 쌓아온 러시아, 미국 우주인 등 해외 우주인과의 연계를 통한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한국 첫 우주인이자 우주 체험 경험에 있는 유일한 연구자로서 우주인 선발, 국제우주정거장을 활용한 우주실험 계획 수립 등 유인 우주기술 개발과 관련한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과학홍보대사' 역할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우주과학과 관련한 강의, 강연과 인터뷰 등 각종 과학 대중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우주비행 경험을 통한 우주비행에 이르기까지의 활동 내용을 담은 우주과학 도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첫 행사는로 우주비행활동 보고서를 곁에 내달 초 열릴 예정인 '국제 유인 우주기술포럼'에 참여키로 했으며 6월 초에는 국제연합(UN)을 방문해 우주 퍼포먼스 때 사용했던 '유엔기'를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도서 출판 의뢰도 쇄도하고 있어 이미 항공우연에는출판사로부터 여러 건의 출판제기가 들어온 상태이며 우주인 이소연을 주인공으로 하는 CF 제의도 들어와 검토 중이다.

관련 우주선 발사 1개 월여 전에 예비우주인으로 전환된 고산(30)씨 역시 항공우연 연구원 신분으로 로이소연씨와 같은 역할을수행한다.

연말뉴스

우주에서 남긴 말... 말...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29)씨가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주인들의 생활을 알리는 '우주인 리포터'를 할 약하면서 또 하나의 별명을 얻었다. 바로 '언어의 마술사'.

이 씨는 우주 기자회견과 TV생중계, 라디오 교신 등에서 주옥같은 말을 남겼다.

▲"이동바탕 설치 말고" "정말 올라와서 느끼는 것은 지구는 파랑과 아름답고 평화롭다는 생각 밖에 안들거든요. 이제 돌아가면 아름답게 살고 싶고, 그 안에서 이동바탕 설치 말고 아름답게 살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주 기자회견에서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한 뒤 느낀 점을 이야기하며)

▲"꿈의 리스트를 만들어라" "어제 제가 러시아 우주인한테 초콜릿 받아먹었는데 곱봉을 열어봤더니 안에 좋은 말이 써져서 있었어요. 바로 '리스트 유어 드림' 그러니까 '꿈의 리스트를 만들어라'라는 말이었어요."

(TV생중계 때 연결된 어린 제 자매에게 전하는 마지막 한마디를 요청받고)

▲"4월21일만 '과학' 외치기 말고 365일 내내" "4월 21일 과학의 날에만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의 지지대가 과학'이라는 말 씌하실 게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과의 TV생중계에서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요청받고)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기문 교수〉



〈최양도 교수〉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포항공대 김기문 교수 등 4인 선정

'제6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포항공대 김기문(54) 교수, 현대중공업 민계식(66) 부회장, 서울대 최양도(55) 교수, 울산의대 송호영(54) 교수가 선정됐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1968년부터 시행돼 온 '대한민국 과학기술상'을 2003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세계적인 연구개발 업적과 기술혁신을 이룬 과학기술인을 발굴·시상하고 있다. 이학과 공학, 농수산, 의·약학 등 4개 분야에서 매년 최대 4명 수상자가 선발되며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21일 오전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 41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열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국 IBM, 호남고객 대상 IT 포럼

한국IBM(대표 이희성)은 오는 23일 오후 1시30분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호남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기술(IT) 포럼을 연다.

이 행사는 소유즈비행(TCO·컴퓨터 시스템의 총비용)을 줄여 비즈니스 효율을 향상시키는 IBM 솔루션의 가치를 호남지역 중견기업과 고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IBM은 이 행사를 통해 자사의 '그린 IT' 솔루션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솔루션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포럼 참가는 한국IBM 행사 홈페이지(www.ibm.com/kr/even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KTFT, 거울 기능 갖춘 '미러폰' 출시

KTFT는 LCD 액정을 거울로 사용할 수 있는 WCDMA 단말기 'EVER 미러폰(EV-W270)'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슬라이드를 열지 않고도 거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2개 전화번호를 각각 독립해 사용할 수 있는 부록 서비스 기능을 지원한다. 전화번호부, 메시지, 통화기록 등을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최대 4명까지 영상통화를 할 수 있고 MP3, 멀티태스킹, 외장 메모리, 200만 화소 카메라 등의 기능을 갖췄다. 가격은 30만원대 중반.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010-2006-0115. 목욕탕 임대 급히 구할, 시외 농장부지 급히 구함, 상가 건물 구매, 수익성 좋은 원룸.

국민공인중개사 011-635-7939, 010-3114-6103. 경동 3200P, 4200P 9억, 4200P 8,000P, 3000P, 2000P, 1000P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011-612-3421. 경제투자투자상담 환영!!, 감정가50%공시지가50%이하 물건 긴급매매, 현금부지 최우선 긴급매매.

금당부동산 (062)223-7400, 016-632-5659. 사할부지 및 사할(절), 매도·교환, 임대·교환, 투자, 임대·교환 등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